

투데이 칼럼

스승의 날에 짚어보는 스승의 의미

군 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 스승은 임금과 같고 부모와도 같으니 그 만큼 존경하라는 말일 게다. 비슷한 뜻으로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아니한다."라는 속담도 쓴다. 그 만큼 스승은 공경하고 존경하는 대상이다.

제자가 스승의 발자국을 따르려는 의미의 역보역추(亦步亦趨)란 말도 있다. 공자의 수제자인 안연(顔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스승님께서 걸으시면 저도 걸고, 스승님께서 빨리 걸으시면 저도 빨리 걸고, 스승님께서 쉬시면 저도 쉰다."라며 존경의 생각을 표했다고 한다.

이처럼 선현들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남달랐다. 하지만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교사에 대해 존경심도 예전 같지 않다. 물론 전자의 경우(警句)의 의미도 희석됐다.

오늘은 제37회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 최초 발단은 1963년 충남 강경고에 재학 중이던 윤석란 JRC(RCY)의 옛 명칭·청소년 직실(직단) 회장이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방문하자고 JRC 회원들에게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에 강경고 JRC 학생들은 별도의

날을 정해 퇴직한 선생님들 찾아보는 행사를 마련했고, 1965년 4월23일 열린 JRC 중양학생회의에서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스승을 존중하는 풍토가 점차 사라지면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은 유난히 더 쓸쓸한 분위기다. 권위위에 따르면 캔커피는 물론 카네이션조차도 뇌물로 간주돼 함부로 주고받을 수 없게 된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사제시간의 소소한 정마저 끊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스승의 날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물을 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이다. 개인이 주는 건 위법이고 학생대표가 전달하는 건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 모호한 규정이다.

스승,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 모두는 스승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잊지 못할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인지 스승과 제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로 반감지 않은 날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존경받아야 할 스승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사들의 존경심이 추락하게 된 데는, 치열한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풍토가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대한 교육정책의 대응 부실도 크다.

다시 말하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 사이에서 상호 신뢰 구조가 무너진 탓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가정교육에 있다. 오직 내 자식만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 착각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높은 의식의 윤리적인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처럼 스승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교권 회복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찾기란 어렵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권은 어떤 상황에서건 절대 확보돼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교권이 위기에 처한 이면에는 일부 부적격 교사들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교사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권 회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제자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뜻을 펴야 한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을 말하는 것이다. "푸른색은 쪽에서 얻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열은 물이 이루었지만 물보다도 더 차다."라는 가르침을 이루어야 한다.



고재출
수필가

사설

전북도, 군산 GM을 강하게 어필해야

전북도는 군산 GM을 강하게 말해야겠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행태가 영 못 마땅하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은행은 8천억 원에 달하는 협상을 한국 GM에 지원하기로 하는 협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지원한다면 군산 이야기는 없었던 것이다. 공장에 대한 활용 방안 언급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패싱 대상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전북도는 정부 쪽에 강하게 말해야겠다. 군산쪽으로 시선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보라고 말이다. 전북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북도는 지금 너무나 앞장선다. 전북도는 군산을 위해서 발언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도민의 오랜 열원이다. 지난 역대 정부는 전북의 발전을 응원하기는 고사하고 관심사 밖으로 밀어냈던 게 사실이다. 고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다. 역대 정부들은 전북의 요구에 귀를 닫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낙후의 모습이 현저하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

과 맞지 않다. 역대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는데 현 정부도 오십보백보이다. 전북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겠다. 지금 전북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군산만 패싱 대상인데 그나마 경제 회생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은 언제 있을 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군산 문제가 심각한데 전북도의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서는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서야 어찌 제대로 일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북도는 비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지역의 모습은 균형발전의 증거가 아니다. 전북도는 도민을 상대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군산이 차별 대우 때문에 울고 있다면 그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지금 도민들이 볼 때 전북도는 무능력하다. 도민들이 유감을 말하지 않도록 전북도는 군산 GM을 강하게 어필해야겠다.

인구감소 해결책 찾아야

전북도는 인구 감소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는데 올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다. 저출산에 인구 유출이 매달 보고 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은 많이 안된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도 역전될 기미는 없다. 전북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가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인구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다. 저출산에 일자리 때문에 전북 탈출을 작심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전북도는 저출산 현상이 만연한 것에 대해서도 이마를 짚어야 한다. 저출산의 역사가 오래인데 어떻게 잘 되겠지하는 식으로 막연한 쪽에 미련을 둔 채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혁신시의 경우를 보니 앞날이 캄캄하다.

도내에서 두 번 째로 인구가 많은 익산시가 그러나 다른 시군들은 오죽하랴. 익산시 옹동면의 경우 지난해 단 한 명의 출생아도 없었다는 것은 저출산 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다른 면들도 열 명 미만으로 2 명에서 4 명 정도라니 저출산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생아 수는 갈수록 줄고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불어나고 있으니 현실이 딱하다.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미래 비전 제시는 지금 영양가가 별로 없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현실 문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전북의 인구가 엇그제만 해도 185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재 184만 명인데 그나마도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180만 명때도 곧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정말이지 해결책이 없다면 인구 감소 앞으로도 계속 될 터이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독자재언

가정의 달, 가정폭력은 NO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끔찍한 폭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는 경우, 신체적 접촉이 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배우자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경우,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 포함된다. 보통 가정폭력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훗날 강도가 심해져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 구보빈 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시험운항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13일 라오닝성 다렌 근해에서 시험운항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